



2024 광주학생탈렌트 페스티벌을 통해 선발된 광주학생들이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보스턴과 뉴욕 탐방길에 오르기 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 K-POP 꿈나무 미국서 끼 펼친다

2024 광주학생탈렌트 페스티벌에서 넘치는 끼를 인정받은 광주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0월12일 개최된 '2024 光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경연과 별도

이정선 시교육감 인솔...보스턴·뉴욕 예술학교와 교류
댄스 클래스·애틀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주역 배우 만남 등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16명이 참여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 미국 내 주요 대학 및 예술 공간 등을 살펴본다. 학생들은 보스턴, 뉴욕 소재 주요 대학 및 예술고등학교 등을 탐방하고,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예술 교류 협의회를 가져 글로벌 예술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 나선다.

또 전문 댄스클래스(Broadway Dance Center 및 Mark Morris 브루클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주역으로

발탁된 배우와의 만남도 갖는다.

K-Culture를 알리기 위해 K-POP으로 이뤄진 버스킹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5·18 세계화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의미 있는 기회는 물론, 광주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K-POP, 실용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세계 공생 '글로벌교육' 구현 힘쓴다

김대중 도교육감, 2025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 제시
학습권·교권 조화 학교문화, 미래교실 구축 등 주력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에도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교육'을 비전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친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도교육감이 지난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2025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내년 3월1일 개교하는 전남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맞춤형 진로교육에도 내 실화를 기한다.

특히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의 미래 수업 모델로 제시했던 '2030교실'의 현장 구축·확산에 본격 시동을 건다. '2030수업 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 연구·브랜딩·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해 학생 주도형 수업 대전환을 이끈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학교 행정 업무를 최적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해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글로벌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역량을

는 체육인재를 양성해 세계에 내보이고, 이종언이 강점을 가진 해외의 우수 인재를 전남에 유치하는 데도 힘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환경 동아리 300팀 운영 ▲전남 의(義)정신 함양 교육 등 전남의 특색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통해 촘촘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최근 3년간 고등학생 602명이 순수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교육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역량 '탄탄'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내년 자동화 설비 등 3개과 선발

동강대학교가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했다.

18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3회 산학연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강대가 호남·제주 지역 대표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며 협약을 맺은 산업체와 기관 및 연구소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 산업계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했다.

동강대는 4개 기업체와 6개 기관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2022학년도부터 운영

해 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소개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RISE(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위원장) ▲AI 시대 중소기업 성장 전략 및 기술 개발 방향(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동강대는 또 지난 8일부터 3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광주영성북향문화관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3회 잡 매칭 행사'를 가졌다.

한편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2025학년도 ▲자동화 설비과(20명) ▲스마트 전기과(25명) ▲호텔조리관광과(25명) 등 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달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98,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목포서 전국 최초 열린다

29-30일 19개 작품 상영

전남 작은학교의 매력을 듬뿍 담아낸 영화·영상제가 전국 최초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9-30일 CGV목포영화광장에서 '작은 시선, 큰 세상'을 주제로 '제1회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추진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사업 10개교와 영화 분야 전남형 특성화 모델학교 2개교 등 총 16개교가 참여해 19개 작품을 상영한다.

상영작은 ▲해보초 '같이놀자' ▲몽탄초 '매점뽑기 쟁탈작전' ▲삼기초 '감정이 사라진 시간' ▲중등초 '머리핀을 꽂은 물고기' ▲청풍초 '폐교' ▲덕진초 '작지만 특별한 학교' ▲고급고 '압박' ▲고흥도화중 '전학생의 거짓말' 등이다.

도시에서 농촌학교로 전학 온 학생의 좌중우돌 적응기부터 학생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한국 입시의 폭력성, 개교 100주년을 맞아 천태초 학생들이 제작한 휴먼 드라마 등 작은학교의 일상을 영화로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로 이뤄지는 영화·영상제인 만큼, 포스터 또한 전남예술고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포토 부스 ▲영화 포스터 전시회 ▲표창원 프로파일러 특강 ▲영화 감독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속가능한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 찾아와 머무르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 영화제가 작은학교를 살리는 교육 문화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